

동북아 공동안보의 쟁점과 과제: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관성

이수형 책임연구위원
soophd@inss.re.kr

I. 문제 제기

II. 공동안보 등장 배경과 핵심 요지

III.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안보를 위한 주요 쟁점

IV. 결론: 정책적 고려사항

국문 초록

동북아 안보 격랑의 중심에 있는 한반도 평화 국면을 유지·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동북아 안보 격랑을 완화·제거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환경과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 공동안보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전략보고서는 공동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동북아 공동안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전략보고에서는 지난 냉전시대 유럽의 안보환경에서 태동·발전한 공동안보 등장배경과 핵심요지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평화와 동북아 공동안보 구축을 관통하는 핵심 쟁점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본 전략보고에서는 남북한의 적대적 상호 경쟁성과 동북아 안보 격랑 모두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인식론적·제도적 장치로 공동안보에 입각한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한다.

핵심어: 공동안보, 한반도 평화체제,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체

I. 문제 제기

- 냉전의 한복판에 있었던 유럽과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냉전 종식 이후 근본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완전히 다른 경로를 겪게 된 궁극적 원인이나 배경은 무엇인가?
- 유럽의 안보 질서와 관련하여 냉전체제의 붕괴는 20세기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여파로 수립된 얄타와 베르사유 질서를 전복¹⁾
 - 독일 통일은 얄타 질서를 뿌리 채 뽑아버렸고 소연방·유고슬라비아·체코슬로바키아의 해체는 주로 베르사유 질서를 해체
 - 냉전 종식 이후 유럽의 안보지형은 NATO, EU, OSCE 등 다양한 다자주의 안보제도에 바탕을 두고 새로운 안보체제가 발전하면서 전통적인 안보 딜레마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구조적 발판 마련
- 반면, 냉전 종식 이후 동북아 안보질서는 중국의 부상으로 세력균형과 세력전이의 미중 강대국 정치가 전개되면서 새로운 지정학 경쟁이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화되고 있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격화와 최근(8월 2일)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공식 탈퇴 계기 새로운 미중 군비경쟁 돌입
 - 중·러의 전략적 제휴 강화와 새로운 군사협정 체결 추진, 한국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 등으로 동북아 안보 정세 격랑
 - 새로운 지정학 경쟁 조짐을 보이는 동북아 안보 정세의 격랑은 70년간 지속되어온 한반도 냉전 체제를 청산하고자 하는 한반도 평화 국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요 장애 요인
- 동북아 안보 격랑의 중심에 있는 한반도 평화 국면을 유지·확산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동북아 안보 격랑을 완화·제거해 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됨

1) Ronald D. Asmus, "Double enlargement: redefining the Atlantic partnership after the Cold War," in David C. Gompert & Stephen Larrabee(eds.), *America and Europe: A Partnership for a New Er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이수형 역, 『미국과 유럽의 21세기 국제질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p. 51.

- 한반도 평화 국면을 저해하는 동북아 안보 격랑을 완화·제거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동북아 공동안보 구축이 요구됨
-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 안보환경과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동북아 공동안보 구축에 있어 핵심적인 쟁점임
-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전략보고는 공동안보 개념에 기초하여 한반도 평화체제와의 구조적 연관성을 중심으로 동북아 공동안보를 구현하기 위한 주요 쟁점과 과제 등을 제시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전략보고에서는 지난 냉전시대 유럽의 안보환경에서 태동·발전한 공동안보 등장배경과 핵심요지를 제시
- 이를 바탕으로 남북한 평화와 동북아 공동안보 구축을 관통하는 핵심 쟁점으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을 모색
- 본 전략보고에서는 남북한의 적대적 상호경쟁성과 동북아 안보 격랑 모두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인식론적·제도적 장치로 공동안보에 입각한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

II. 공동안보 등장 배경과 핵심 요지

1. 공동안보(Common Security) 등장 배경

가. 1970년대 미국과 소련의 전략핵무기 군비통제

- 지난 냉전시대 유럽의 안보질서는 미국을 한 축으로 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소련을 또 다른 축으로 하는 바르샤바조약기구(WTO)간의 진영체제로 구성
- 특히, 1955년 바르샤바조약기구의 탄생과 4대국(미·소·영·프)과 오스트리아와의 국가조약 체결로 유럽은 동서독 분단을 넘어 동유럽과 서유럽으로의 대륙의 분단이 완성
- 따라서 냉전시대 유럽의 안보지형은 서유럽 안보 책임자인 미국과 동유럽 안보 책임자인 소련이라는 강대국 정치의 변화와 구조적으로 연동되어 변화양상을 보여 왔음

- 1970년대 들어와 미소 데탕트 계기, 유럽에서의 군비통제나 군축 협상은 광범위한 의미에서 3가지 형태의 개별적인 포럼에서 진행²⁾
 - 첫 번째 형태는 쌍무적 유형으로 유럽 안보질서 진영체제의 핵심축인 미국과 소련사이에 전개된 전략핵무기 군비통제 협상
 - 두 번째 형태는 다자주의 유형인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의 전개
 - 세 번째 형태는 NATO와 WTO간에 이루어진 동맹 대 동맹 유형으로 1973년 10월에 시작된 상호균형잡힌병력감축(MBFR) 협상
- 1970년대 초반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된 유럽의 군비통제와 군축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던 미국과 소련 간에 전개된 전략핵무기 군비통제
 - 유럽의 데탕트 국면에서 미국과 소련의 군비통제 협상이 중요한 이유는 협상 대상의 무기가 전략핵무기 군비통제였다는 점
 - 즉, 서유럽과 동유럽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미국과 소련은 유럽의 안보를 위한 군비통제가 아니라 서로의 본토 안전을 위한 강대국에 국한된 전략핵무기 협상을 추진

나.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의 동맹의 안보 딜레마 발생

- 미국과 소련의 전략핵무기 군비통제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소련은 미국 본토가 아닌 서유럽 대륙 전체를 겨냥한 SS-20 중거리 핵무기를 시험·배치하기 시작
 -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서유럽 안보에 대한 소련의 군사적 위협을 공통적으로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자국의 입장에 유리한 측면에서 대응전략을 구상
 - 미국은 소련과 진행 중인 전략핵무기 군비통제 협상을 고려, SS-20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에 대해 안보적 우려감을 표명하지 않음
 - 반면, 서유럽 국가들은 미국이 동맹국가들의 안보를 희생하면서 소련과 전략핵무기 군비통제 협상을 진행한다고 미국을 비난
- 소련의 SS-20 중거리 핵무기의 사정거리(5,000km)는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는 없어도 서유럽 대륙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 보유

2) Jonathan Dean, *Watershed in Europe: Dismantling the East-West Military Confrontation* (Lexington: Heath and Company, 1987), p. 93.

- 이에 따라 SS-20 중거리 핵미사일을 바라보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 간의 위협인식과 대응책 마련의 불일치 발생
 - ※ 핵무기의 사정거리에 따른 동맹국가들 간의 안보위협 인식의 불일치가 바로 냉전시대 미국과 서유럽 국가 간의 안보 딜레마의 본질이었음

- 미국과 서유럽 국가들은 SS-20 중거리 핵미사일 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1979년 12월 NATO의 이중결정(double track decision)에 합의
 - 이중결정은 소련과의 중거리 핵무기 군비통제 협상 추진과 동시에 SS-20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 강화차원에서 서유럽에 새로운 미국의 중거리 핵미사일을 배치하는 군비증강 정책 동시 추구

다. 유럽에 국한된 제한핵전쟁 위험성 증폭

- 1979년 미국과 소련의 전략핵무기 협상 실패와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계기로 미국과 소련의 새로운 냉전관계 부각
 - 카터 행정부는 유사시 제한핵전쟁을 가정하여 광범위한 군사적·정치적·경제적 목표물을 제시한 대통령 결정 PD-59 발표
 - 또한 레이건 행정부는 핵무기 배치에 관한 국가안보전략지침인 NSDD-13과 1982년 초반 주요 군사정책 지침 마련
 - ※ 이러한 정책지침에서 중요한 변화는 소련과의 장기적인 핵전쟁이나 재래식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필요조건들을 표명한 것임³⁾
- 미소 관계의 악화는 군비통제 협상이 진행될 가능성을 낮추는 동시에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증폭 계기로 작용
 - 1980년대 초반 유럽 대륙에 걸쳐 반전반핵 평화운동이 전개되는 가운데 1981년 11월 미국과 소련의 중거리 핵무기 협상이 시작됨
 - 미소간의 중거리 핵무기 협상은 유럽에서 전쟁 방지와 이를 위한 새로운 안보개념인 공동안보 개념을 탄생시키는 주요 배경으로 작용

3) Raymond L. Garthoff, *The Great Transition: America-Soviet Relation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p. 37.

2. 공동안보의 핵심 요지

- 팔머위원회 보고서(Palme Commission Report)에 기원을 두고 있는 공동안보는 어떠한 국가도 자신의 군사력에 대해 자신만의 일방적인 결정을 취해서는 결코 안보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임⁴⁾
 - 왜냐하면 안보란 이에 대한 잠재적 적성 국가들의 작용 및 반작용과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기 때문
 - 안보의 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공동안보는 전통적인 억지 개념이나 냉전적 사고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 간 새로운 대화의 장이나 제도의 창출을 통해 전쟁의 위험을 줄이고 평화를 얻고자 했던 것임
- 공동안보는 억지에 바탕을 둔 전략적 독트린과 동맹체제는 안보 딜레마와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안보를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가정
 - 공동안보는 비도발적·비공세적 방위와 같은 접근방법의 수단적 유용성을 지지하며,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성공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지속적인 정당성을 얻게 되었음
 - 공동안보 개념은 냉전 종식 이후 과도기적 유럽의 안보상황을 극복하고 분단된 유럽대륙을 통합된 유럽으로 만드는데 일조한 다양한 다자안보제도들 간의 경쟁과 협력의 근간으로 작동

4) Palme Commission, *Common Security: A Blueprint for Survival* (New York: Simon & Schuster, 1982), pp. 7-11.

III.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공동안보를 위한 주요 쟁점

1.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체제와의 구조적 연계

-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통해 법적·제도적 평화보장으로 한반도에 실질적이고 공고한 평화정착이 달성되어 한반도 안보체제와 선순환 관계로 작동하고 있는 상태”로 정의⁵⁾
 - 한반도 평화체제는 항구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비핵화 프로세스와 동북아 안보체제의 변화에 따라 평화체제의 내용물도 변화 가능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실현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이라는 두 가지 쟁점 모두에 걸쳐 있는 핵심 쟁점
 - 2005년 「9.19 합의」 이후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남북한 관계, 북핵 문제의 지역적·국제적 합의, 그리고 미국 및 역내 국가들의 입장과 역할 등이 주요 논의 의제로 등장
-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는 한반도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보체제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 명확해 졌음
 -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었다 할지라도 동북아에는 여전히 어떤 상태로든 안보체제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평화체제와 선순환 구조를 이루어야만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유지될 수 있음
 -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안보환경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기 때문에 동북아 안보체제와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음

5) 이수형,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판적 재구성,” 정성윤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7), p. 25

나. 동북아 안보환경과 한반도 평화체제

- 한반도 평화체제가 동북아 안보환경 및 안보체제와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 한반도 평화체제는 공간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차원으로 구분할 필요성 대두
- 한반도 차원의 평화체제는 남북한의 평화공존이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순기능으로 작동하지만 동북아 안보체제로부터 완전한 자율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
 - 이에 따라 동북아 안보체제의 작동방식과 성격에 따라 한반도의 평화는 잠재적 갈등이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자체가 가변성을 갖고 있는 불안정한 평화체제
 - 정전체제가 종전선언이나 과도기적 잠정협정으로 전환되었어도 동북아 정세로 인해 평화가 장기적·구조적으로 확보되지 못한 상황
 - 그럼에도 관련 행위자들의 화해·협력적 습관과 일반화된 행위원칙의 확대 및 심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 국면이 점진적으로 제도화된 평화로 나갈 수 있는 토대나 환경을 마련한 상태
- 동북아 차원의 평화체제는 관련 행위자들의 안보적 상호작용이 공동안보와 같은 안보의 상호의존성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공간적 영역이 동북아 차원으로 확장된 상황
 - 한반도 평화체제는 한반도 차원을 넘어 동북아로의 외연확대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동북아 안보체제의 성격 및 작동방식과 밀접한 연계성을 가지고 있음
 - 한반도에 지속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평화체제가 구축되기 위해서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체제가 선순환구조를 형성하는 완전한 한반도 평화체제가 구축되어야만 가능

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방안에서의 전략적 고민

- 첫 번째는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에서 한반도 차원과 동북아 차원을 동시에 연계시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
 - 한반도 평화체제는 동북아 지역체제나 국제체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동북아 안보체제와의 구조적 연계성을 고려해야 함
 - 미중 전략적 경쟁이 동북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는 중단기적으로 동북아 안보체제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정책적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는 남북한 평화공존을 증시하는 한반도 평화 구축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임

- 두 번째는 동북아 차원의 평화체제 구축과정은 동북아 정세와 불가분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남북한의 평화공존 노력이 동북아 정세로부터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중요
 - 적어도 동북아 차원의 평화체제는 한반도 차원의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된 이후 점진적으로 추진하여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체제의 선순환구도를 형성하는 전략적 마인드를 갖는 것이 중요
 - 현 시점에서 동북아 차원의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체제와의 선순환구도 정립보다는 남북한의 평화공존 노력이 동북아 안보체제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임
- 미중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는 동북아 안보환경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남북한 평화협력 프로세스가 중요
 - 동북아 차원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 평화협력 프로세스는 한반도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동북아 안보체제로부터 일정 정도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파제 역할 담당

2.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체 공존방안 모색

가.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에서 동맹 문제의 중요성

- 동북아 공동안보 구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중의 하나가 바로 동맹 문제임
 - 동맹 문제는 단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 국한되어 있는 쟁점이 아니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과정과도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 쟁점중의 하나
- 동북아 공동안보를 구현하기 위한 조건들과 관련하여 동맹 문제는 동북아시아 비핵무기지대화 이상으로 중요한 쟁점
 - 어떤 측면에서는 동북아 비핵지대화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동북아 역내의 동맹체제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동북아 공동안보는 요원하다 할 것임
 -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 공동안보의 구현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비핵지대화 이상으로 동북아 역내 동맹체제의 변화와 직결되어 있음
 - ※ 현재 동북아 지역은 1951년 미일동맹을 근간으로 형성된 샌프란시스코체제를 바탕으로 한 미국 중심의 쌍무적 동맹체제 유지

- 이런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공동안보 구현을 위해서는 현재의 동북아 동맹체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동북아 동맹체제 문제는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평화체제, 그리고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 과정 모두에 관여하고 있고 또한 이를 관통하는 쟁점이자 한반도 평화구축의 핵심이기도 함

나.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체의 병행·공존 방안

-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포용하는 공동안보 개념에 근거하여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체의 병행·공존이 가능한 동북아 안보환경 조성
 - 동맹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 논리에 입각해 있고 다자안보협력체는 공동안보 논리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간의 보완적 기능을 담보해 낼 수 있는 전략적 설계가 필요
 - 이를 위해 동맹과 다자안보협력체는 대체재가 아니라 상호 보완재라는 인식하에 동맹의 국가안보 논리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느슨하면서도 포괄적인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이 필요
- 느슨하면서도 포괄적이며 개방적인 역내 다자안보협력체 구성을 통해 평화지향의 안보환경을 조성하여 동맹의 성격 변화 유도
 - 안보에 대한 인식 전환을 바탕으로 동맹이 갖고 있는 군사안보 성격을 최소화하고 정치외교 성격의 활성화를 통해 안보제도로서의 동맹 성격 변화 유도
 - 이를 위해서는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한 평화협력 프로세스의 불가역성을 강화시켜 평화지향의 안보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함
 - ※ 지난 냉전시대 동맹 대 동맹의 안보구도에도 불구하고 유럽안보협력회의와 같은 포괄적이면서도 느슨한 다자안보협력체의 탄생·발전이 동맹 구조의 유럽 안보 지형에 미친 영향을 참고할 필요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안보에 대한 우리의 새로운 인식과 사고의 전환이고 이에 근거하여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다자안보협력체 구축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IV. 결론: 정책적 고려사항

- 국가안보의 대안적 개념으로 등장한 공동안보는 유럽 안보 상황이 긴장과 갈등 국면으로 치닫고 있을 때 등장
 - 냉전시대 공동안보 개념의 등장과 발전은 안보에 대한 인식론적 전환점을 마련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유럽에서 다자안보협력체가 탄생·발전하는 이론적 바탕이 됨
- 안보 격랑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은 동북아 지역에는 이를 완화·극복하기 위한 역내 다자협력체 구축이 필요
 - 현재 동북아 안보 정세는 미중 전략적 경쟁의 심화, 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폐기에 따른 새로운 군비경쟁 가능성 증대 등으로 향후 역내 안보 격랑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는 역내 갈등을 완화하고 대화와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다자안보 협력체 구축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됨
- 이런 측면에서 지난 냉전시대 유럽의 경험과 교훈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음
 - 지난 냉전시대 유럽의 안보환경은 기본적으로 국가안보 논리의 지정학 경쟁에 입각한 NATO와 WTO간의 대결적 동맹체제 구도
 - 다른 한편으로 대결적 동맹체제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들을 완화할 수 있는 유럽안보 협력회의(CSCE)가 존재
 - 동맹 대 동맹의 대결구도에서도 역내 국가들 간의 대화와 협력, 그리고 신뢰조성이라는 탈냉전적 속성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 마련
- 이러한 유럽의 경험과 교훈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던져주는 시사점은 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도 역내 갈등과 대립을 완화하고 신뢰를 증진시켜 나갈 수 있는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가 필요하다는 점
 - 이를 위해서는 북미 비핵화 프로세스와 남북한 평화협력 프로세스의 불가역성을 강화시켜 평화 지향의 안보환경을 구축해야 함

- 현재의 동북아 상황에서 동북아 공동안보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한 평화공존의 지속성과 제도화를 담보한 한반도 차원의 평화체제 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 우선적으로 남북한이 제한적일지라도 공동안보에 입각하여 남북 평화공존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한반도 차원의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공동안보에 바탕을 둔 동북아 차원의 평화체제 추진
 - 한반도 비핵화와 그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반 정책 조건들과 과제들을 재검토하고 남북한 평화공존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

참고문헌

- 이수형, “한반도 평화체제의 비판적 재구성,” 정성운 외,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과 대북정책』 (서울: 통일연구원, 2017)
- Asmus, Ronald D., “Double enlargement: redefining the Atlantic partnership after the Cold War,” in David C. Gompert & Stephen Larrabee(eds.), *America and Europe: A Partnership for a New Er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8), 이수형 역, 『미국과 유럽의 21세기 국제질서』 (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 Dean, Jonathan, *Watershed in Europe: Dismantling the East-West Military Confrontation* (Lexington: Health and Company, 1987)
- Garthoff, Raymond L., *The Great Transition: America-Soviet Relations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ion, 1994)
- Palme Commission, *Common Security: A Blueprint for Survival* (New York: Simon & Schuster, 1982)

Abstract

Issues and Challenges of Common Security in Northeast Asia

In order to maintain the peac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center of the security conflict in Northeast Asia, it is necessary to have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ease up the security conflict in Northeast Asia. The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is a key issue in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common security in Northeast Asia as it is structurally linked to the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as well as sustainabl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the concept of common security, this strategic report aims to present key issues and tasks for the implementation of common security in Northeast Asia, focusing on the structural link to the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Common Security, The Peace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 Alliance and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SS

전략보고

September 2019. No. 41

국가안보전략연구원

📍 06295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120 인스토피아B/D
☎ 02-6191-1000 📠 02-6191-1111 🌐 www.inss.re.kr